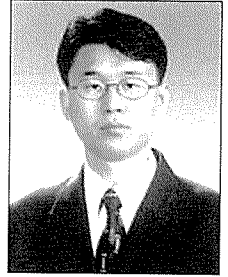


사서교사! 스승으로 거듭나기




이 승 길*

두 명의 학생이 앞에서 걸어온다. 한명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함께 걸어가던 친구는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와 표정으로 지나친다. “누구야?” “도서관 선생님이잖아!” 뒤에서는 늘 이런 대화들이 오고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무심한 일상 속에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창시절에 “야!” “너!”로 불리는 것이 싫었던 기억 때문에 새 학년이 시작되면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모두 외운다고 한다. 사서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학생들을 개별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나에게 귀감이 되었다.

사서교사 초년에는 도서관 이용규칙에 대해 철저히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강압적이고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다 교사로서 맞는 스승의 날이 매년 반복되면서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숙고해보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사로서 보다 더 중요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서교사는 예체능 교사나 보건교사와 함께 입시중심의 중요과목 교사가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인기는 없지만 참스승의 역할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스승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이다. 이러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보니 학생을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실천하는 방법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도서관은 즐겁고 편안한 곳”이라는 표어를 만들고 정숙, 청소와 서가배열에 엄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과제 해결 과정을 도서관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교실처럼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실습 위주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밀려온다. 나는 그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말을 걸어 대화를 시도하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한다. 장기 연체자가 있어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른다. 매를 들면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적인 행동에 경계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심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러한 친밀감 형성이 학생들에게 사서교사의 존재를 스승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아무리 양복에 넥타이로 차려입어도 “여기요”, “저기요”로 불리웠는데 지금은 거의 듣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교사 신분이 될 수 없다. 교사로 인정받고 싶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교사의 역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나는 지금 사서교사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아니라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고민한다. 학교에 한명, 전국에 280여명의 사서교사이지만 작은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참스승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올해도 도서부 아이들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더 싸지도 비싸지도 않고 딱 3천원이어야만 하는 선물을 사들고 와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준다. 자장면을 한 그릇씩 나누어 먹으면서 몇명의 장기자랑을 보고, 나는 트로트를 몇 소절 부르다가 가사를 잊었다며 자리에 앉는다.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연이어 박수가 터진다. 스승의 날을 맞아 사서교사인 나는 참스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 우리 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 경신고등학교 사서교사, kslrc@hanmail.net